

한국 근대 농민시의 전개과정과 현실표상 연구*

— ‘조선농민사’의 농민시를 중심으로 —

박 경 수**

| 목 | 차 |
|-----------------------------|------------------------------|
| I. 서 론 | (2) 풍속사적 농민시 |
| II. 조선농민사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 (3) 계몽적 농민시 (4) 비판적 농민시 |
| III. 농민사 농민시의 현실표상과 그 유형 | (5) 민족적 농민시 |
| (1) 목가적 농민시 | IV. 결론 : 농민사 농민시의 문학사적 위상 |

I. 서 론

일제 강점기의 문학에서 이른바 농민문학은 당대에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만큼 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

*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육성 신진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1920년대 후반기부터 1930년대 전반기까지 농민문학은 이론적 논의와 함께 농민소설, 농민시, 농민극 등의 실제 창작을 통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농민문학은 우선 이론과 실제가 병행되는 가운데 전개된 문학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한편으로 당대의 역사적, 사회경제적 상황과 결부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에 농민문학이라 말할 수 있는 작품들이 개인의 문학취향에 따라 산발적으로 창작된 것에 비하여, 1920년대 중반 이후 농민문학은 개인적 문학취향을 넘어서 일제하의 역사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에 일정한 집단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점은 당시 농민문학이 문학외곽단체이자 천도교 청년당의 농민운동단체인 ‘朝鮮農民社’와 조직적 문학단체이자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지녔던 카프(KAPF)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 동안 일제하의 농민문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설과 비평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농민소설 분야에 관한 논의는 일일이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쌓으면서 진척되어 왔다. 그리고 비평분야도 1980년대 이후 비평사의 총체적 복원을 위한 관심이 고조되고, 농민문학의 실체를 창작과 실천의 연계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병행되는 가운데 농민문학론의 실상과 위상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농민문학의 전체 범주 속에서 시분야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제 영역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시의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제하 농민시의 논의에 시발점이 되었던 글이 崔元植의 〈농민문학을 위하여〉¹⁾이다. 이 글은 농민문학론의 연구들이 주로 1930년대 초 白鐵, 安畝光을 중심으로 한 카프의 농민문학론에 집중²⁾되었던 사정과는 달리 그동안 간과

1) 崔元植, “농민문학론을 위하여”, 白樂晴 廉武雄 編, 韓國文學의 現段階 III(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4. 9).

2) 카프의 농민문학을 집중 논의한 글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芹川哲世, “한일 농민문학론의 비교연구”, 冠岳語文研究 제5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0).

② 권영민, “1930年代 初期의 農民文學論—白鐵의 〈農民文學의 問題〉를 中心으로”, 小說文學 (1983. 3).

되었던 《朝鮮農民》과 《農民》지에 발표된 농민문학론의 추이와 농민시의 특징을 일별하고자 한 점에서 주목된다. 농민문학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이를 계기로 ‘조선농민사’ 계열과 카프 계열을 포함해서 농민문학 논의의 총체적인 구도를 파악하려는 노력 속에 더욱 심화되고 체계화된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³⁾ 그런데 농민문학론의 이론적 검토나 비평적 논의의 대부분이 농민시의 실제 창작과 결부되지 못했던 까닭으로 농민시 자체의 연구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오랜 기간 담보상태를 이루었다. 농민시 연구의 새로운 단초는 金載弘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이 일련의 해금 또는 실종시인들의 시를 재검토하는 일환으로 ‘농민시인’ 朴芽枝의 시세계를 재조명함으로써,⁴⁾ 근대시사에서 농민시의 시적 성과를 재평가할 수 있는 한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를 뒤이어 나온 徐範錫의 한국 농민시 연구의 성과⁵⁾는 농민문학에 대한 기존의 편향적 논의의 한계를 일시에 극복하면서, 농민시에 대한 갈래인식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새롭게 하는 데 기여했다. 서법석은

-
- ③ 金允植, “농민문학론—프롤레타리아문학과의 관련”, 韓國近代文學思想史 (서울: 한길사, 1984. 6).
- ④ 박남훈, “카프 농민문학론 연구”, 외국문학 제7권 제2호 (1990. 6).
- ⑤ 김영민, “1930년대 농민문학론 연구”, 梅芝論叢 제8집 (연세대 梅芝學術研究所, 1991. 2).
- 3) 이하 ①~④는 ‘조선농민사’와 카프의 농민문학론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글이며, ⑤는 ‘조선농민사’의 농민문학론을 집중 고찰한 글이다.
- ① 金明仁, “民族文學과 農民文學—식민지시대 농민문학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白樂晴 廉武雄 編, 韓國文學의 現段階 IV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5. 6).
- ② 李注衡, “농민문학의 실체”, 張德順 외, 韓國文學史의 爭點 (서울: 集文堂, 1986. 11).
- ③ 한수영, “1920가30년대 한국농민문학론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7).
- ④ 권영민, “식민지시대의 농민운동과 농민문학론”, 한국 민족문학론 연구 (서울: 민음사, 1988. 9).
- ⑤ 류양선, “‘조선농민사’의 농민문학론과 농민소설”, 冠岳語文研究 제13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8. 12).
- 4) 金載弘, “농민시의 선구—朴芽枝”, 韓國文學 제194~195호 (1989. 12~1990. 1).
- 5) 서법석, 한국 농민시 연구 (서울: 고려원, 1991. 4).

일제하에 발표된 농민시 관계 논의와 작품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농민시의 전반적인 흐름과 갈래를 체계화하는 한편 농민시의 구조와 이미지상의 특징들을 깊이있게 논의했다. 그리고 吳世榮도 일제하의 농민문학이 농민운동과 연관된 문학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밝히면서, 농민문학의 쟁점을 당시의 민족주의문학과 계급주의문학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농민시의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⁶⁾ 농민시의 연구는 이상의 노력으로 크게 진전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단계로 끌어 올려지게 되었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성과에 힘입으면서도, 기존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조선농민사’의 농민시를 집중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카프 쪽 시인들이나 여타 시인들의 농민시도 함께 고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으나, 이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일은 매우 벅찬 일이다. 따라서 당시 농민시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조선농민사’의 농민시부터 면밀히 고찰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존의 농민시나 농민문학 연구들이 1930년대 초기 카프의 농민문학 논쟁을 지나치게 중시했던 까닭에 ‘조선농민사’의 농민문학은 한 과도기적 현상 정도로 이해될 소지가 있었다. 사실 카프 쪽의 농민문학은 시보다는 소설 쪽에 치중되는 한편으로 이론이 무성했던 편이다. 이에 비해 농민시는 카프의 농민문학 논의 이전에 이미 ‘조선농민사’를 중심으로 자체의 이론적 논의와 함께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카프 쪽 시인들이나 여타의 시인들은 독자적인 관심 속에 농민시를 창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농민시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조선농민사’를 중심으로 파악한다고 해도, 이들 시를 검토하기 이전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조선농민사’의 단체적 성격이나 여기에 관련한 인물들의 성향이 농민시와 어떠한 함수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조선농민사’의 성격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입장도 한결같지가 않다. 농민사의 농민운동 성과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면서, 그것이 농민의 주체성이 강조된 농민운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

6) 吳世榮, “日帝下 韓國의 農民文學論과 農民詩 研究”, 성곡론총 제22집 (성곡 학술문화재단, 1991. 6).

거나,⁷⁾ 이와는 달리 농민사가 당시 민족개량주의자들에 의해 조직된 대표적 농촌계몽운동단체였다⁸⁾고 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선농민사’의 농민문학을 파악하는 입장도 상반성을 보여주고 있다. 농민사의 농민문학이 구체적 농민현실과 결부된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농주의적 성격에서 중국에는 수준높은 문학이론을 보여주었다고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에서 파악된 것이 한 가지이며,⁹⁾ 농민문학론과 작품의 이면에 농민사의 정치적 성향이기도 한 민족개량주의적 태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검토된 것이 다른 한 가지이다.¹⁰⁾ 그렇다면 ‘조선농민사’의 농민시는 과연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에 대해 본고는 농민사의 농민문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모두 일정 부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전자의 긍정적 입장은 농민문학의 성과를 나름대로 중시한 것이며, 후자의 비판적 입장은 작품의 실제보다 농민사나 인물의 정치적 성향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작품을 검토한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판단한다. 물론 ‘조선농민사’가 주재한 《조선농민》이나 《농민》에 실린 작품들은 농민사의 전체적 성격이나 주도세력의 정치적 성향과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 문학단체도 아닌 농민운동의 한 특정 단체인 농민사에서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농민문학운동을 전개했던 만큼, 농민사의 농민운동 취지나 농민사의 관련 인물이 지닌 정치적 성향이 문학작품의

7) 吳益濟, “한국 농협운동의 선구-조선농민사와 농민공생조합운동”, 韓國思想 제5집 (1962. 12).

趙東杰, 日帝下の 韓國農民運動史 (서울: 한길사, 1979), p. 174.

飛田雄一, “조선농민사의 전개”, 강재연 김정미 외 편저, 김정희 역, 韓國 近代社會와 思想 (도서출판 중원문화, 1984. 4).

8) 柳世熙는 “韓國農民運動史”, 韓國現代文化史大系 IV (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소, 1977. 12), pp.308~310에서 ‘조선농민사’가 온건과 민족주의자들로 조직된 농민조합의 성격을 지닌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① 池秀傑, “朝鮮農民社의 團體性格에 관한 연구”, 歷史學報 제106호 (1985. 6).

② 김현숙, “일제하 민간협동조합운동에 관한 연구”, 日帝下の 社會運動 (문학과 지성사, 1987).

③ 이우재, 한국농민운동사연구 (서울: 한울, 1991. 2).

9) 崔元植, 앞의 글과 金明仁, 앞의 글.

10) 류양선, 앞의 글.

창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여러 문학인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 일률적 경향만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어떤 한 작가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작품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농민사의 농민시를 ‘조선 농민사’라는 일정한 정치적 성향의 틀 속에서만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농민사의 농민문학에 대한 전체적 전개양상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면서 작품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상에서 밝힌 바처럼, 농민문학 형성의 전체적 성격에 유의하면서 ‘조선농민사’의 농민시를 대상으로 그 시적 위상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조선농민사’의 성격을 먼저 간략히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농민사의 농민운동과 실제 작품 사이의 함수관계를 고려한 가운데 농민시의 현실표상 양상에 촛점을 맞추어 작품을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II. 조선농민사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조선농민사’에서 주재한 《조선농민》과 《농민》은 당시 농민문학 발표의 주요 무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문학의 갈래를 비로소 문단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면서 독자대중 속으로 확산해 가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물론 황석우가 일찌기 농민문학을 제창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구체적 내용이 없는 선언적 구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 것이었다.¹¹⁾ 아무래도 농민문학은 《조선농민》에 와서 문학의 중요한 국면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 문학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농민》에 가서는 ‘농민문예’란이 마련되는 등 실질적인 문학운동으로 자리매김되면서 크게 확산되어 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 《조선농민》과 《농민》을 주재한 ‘조선농민사’의 성격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 단체의 강령 및 취지와 조직구성원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은 당시 농민사의 농민시, 나아가서 농민문학운동의 중요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방법적 통로가 된다.

11) 黃錫禹, “新年文壇에 바람”, 東亞日報 (1923. 1. 1).

‘조선농민사’는 그 전위조직이라 할 수 있는 천도교 신파측의 ‘천도교 청년당’이 1923년 9월에 결성되어 농민부의 활동을 강화하여 조직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에 따라 1925년 10월에 창립된 농민운동단체이다. 물론 여기에는 천도교 신파측의 당시 농민운동조직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었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의 발족을 계기로 국내의 농민운동이 점진적 민족주의자들의 계몽운동과 대립하고, 1924년 4월 ‘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되면서 천도교 측은 그들의 지지기반인 농어촌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장악되는 것을 염려하여 조선농민사를 창설했던 것이다.¹²⁾

이러한 조선농민사의 창설 배경은 농민운동을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해 갈 것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면적으로는 천도교 자파측의 세력을 유지, 확대 시키면서, 표면적으로는 농민교양사업을 통한 생활과 의식의 개선에 목표를 둔 농촌계몽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쳐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면적인 목적을 처음부터 내세울 수는 없었다. 이는 단지 사우 확장을 통해 달성할 일이며, 우선 범농민운동단체로서 농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색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농민사도 천도교 청년당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독립기관으로 발족하면서, 洪命喜, 安在鴻, 韓偉健, 金俊淵, 柳光烈, 車相贖 등 당시 명망있던 인사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범사회단체의 일원들로 구성된 14인의 중앙이사로 조직하게 되었다. 중앙이사장에는 당시 동경유학생이었던 李晟煥이 천거되고,¹³⁾ 천도교계 인사를 비롯한 언론계, 학계, 법조계, 농민계, 학생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연합조직이었다.¹⁴⁾ 이처럼 광범위한 연합조직으로 구성된 조선농민사는 명목상으로는 독립된 농민운동 기관이었지만, 천도교 청년당의 영향력을 직접 간접으로 받고 있는 합작조직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이러한 양면적 성격은 후에 천도교 청년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농민사와 잦은 마찰을 보였고, 1930년 4월에 가서는 천도교

12) 이우재, 앞의 책, p. 58.

13) 李晟煥은 당시 그를 농민사의 중앙이사장으로 천거한 朴思稷에 따르면, 일본 동경의 잠사고등학교를 나온 농업전문가로 후에 천도교 청년당의 농민부 수석위원으로 있었던 인물이다. 朴思稷, “朝鮮農民社의 發展過程”, 農民 제2권 제7호 (1930. 7) 부록, pp. 6~9 참조.

14) “朝鮮農民社의 沿革”, 朝鮮農民 제6권 제4호 (1930. 6), pp. 27~28.

청년당에서 농민사를 자체 조직에 흡수함에 따라 이에 반발한 이성환 측의 ‘전조선농민사’와 분열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여기서 먼저 ‘조선농민사’가 ‘전조선농민사’와 분열되기 이전 《조선농민》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 내지 농민문학운동의 방향과 그 성격을 파악해 보자. 농민사의 사업취지이자 그 기관지 《조선농민》의 발간취지는 농본주의를 내세운 이성환의 다음 창간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 전 조선 人口의 그 九할이나 되는 농업대중(農業大衆)의 인격 해방(人格的解放)을 위하여
- ◇ 조선 농촌의 그 참담한 경제적 현상(經濟的 現狀)을 구제하기 위하여
- ◇ 전 조선 절대 다수의 농업대중의 지식적 각성(知識的 覺醒)을 재촉하기 위하여¹⁵⁾

이상에서 농민의 인격적 해방이란 농민의 주체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며, 경제적 현상으로부터의 구제란 농민의 생활개선과 경제적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리고 농민의 지식 각성의 취지는 바로 농민의 문맹퇴치 교육을 통한 교양의 함양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치적 구호나 경제적 내용이 사상된 대신 농본주의를 내세운 농민사의 취지는 그만큼 농민사의 초기 농민운동 방향이 농촌계몽적 사업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점에서 농민사의 농민운동이 1920년대 말부터 공산주의자들이 파고 든 적색농조의 운동과는 달리 온건한 민족주의자들의 농촌개량과 농민계몽운동 노선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실제 농민사의 초기 구체적 활동내용을 보면, 기관지 《조선농민》의 발간을 비롯하여, 농민사우의 모집 및 농민사 지부 설치, 농민사 간선부의 구판사업과 인쇄부 설치 운영, 농민강좌 개최, 농민독본 발간, 농가 경제 조사, 농민야학 상황과 농민교육자의 조사 및 표창, 농민창가 농촌단문 등의 모집 발표 등이다.¹⁶⁾ 이처럼 농민사는 초기에 일제와의 마찰을 피해서 온건한 방향의 농민사업을 통해 사세를 확장해 갔다.

그러다 농민사는 1928년 이후에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면서, 농민계몽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농민의 당면 이익획득에 관한 소작료의 합리화, 농산물

15) 碧梁(李晟煥), “創刊辭”, 朝鮮農民 창간호(1925. 12)에서 주요 사항만 인용한 것임.

16) 이우재, 앞의 책, p. 59.

가격의 적정화 등 보다 현실적인 사업을 펼치고자 했다.¹⁷⁾ 농민사의 이러한 사업강화는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가열된 농민들의 소작쟁의 현실¹⁸⁾을 자체의 사업에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농민사의 사세도 크게 확장 되었는데, 1928년 당시 만주지역을 포함한 158개의 지방지부에 16,57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¹⁹⁾ 그러나 이와 같은 농민사의 외형적 신장은 1930년 4월부터 천도교 청년당에서 농민사를 직영체제로 흡수시킴으로써 비신도계인 이성환 측과 분열을 맞게 되었고, 사업도 일제와의 타협적 방향으로 전환하여 농민의 지식향상과 복리증진 등의 농민개량운동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한편 이성환은 조선농민사를 탈퇴하고 별도로 ‘전조선농민사’를 결성했는데, 1931년의 조직 개편에서 “실제 경작자인 농민으로써 토지에 의존하는 생활권의 확보를 기함”이라는 선언과 “농민의 부담을 경감할 것, 산업단체의 법규 및 예산 반대, 농민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보급할 것, 봉건유제의 삭제” 등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말하자면 농민계몽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농민의 실제적 생활에 기초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펼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조선농민사’는 조직확대에도 노력하여 1931년 말까지 18개 군연합회에 12,161명의 조합원을 확보하였다.²⁰⁾ 그러나 이 단체의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1931년 2월 정평 적색노조 사건 때 위문단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나,²¹⁾ 1930년대에 들면서 세계적 경제공황과 만주사변으로 인해 일제가 농민조합을 가혹하게 탄압한 데다 자금난 등으로 사세가 위축, 퇴조해 간 것으로 보인다. 농민문학의 측면에서도 ‘조선농민사’가 《농민》을 발행하면서 농민문예란을 확대해간 것과는 달리, ‘전조선농민사’는 기존의 《조선농민》을 자체의 기관지로 삼아 2호 정도를 간행하

17) “朝鮮農民社의 沿革”, p. 31.

18) 朝鮮總督府, 調査月報 (1933. 6)에 의하면, 1920년 이후 소작쟁의 건수는 1920년부터 1922년까지 30건 이하였다가 1923년부터 170건을 넘어서면서 1926년 198건, 1927년 275건, 1928년 1,390건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19) “朝鮮農民社의 沿革”, p. 30.

20)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於ける鮮治安狀況—昭和 8年 (1933). 柳世熙, 앞의 책, p. 311에서 재인용.

21) 池秀傑, 앞의 글, p. 190.

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²²⁾ 그리고 거기에는 문학방면에 崔仁俊의 소설 〈新作路〉와 〈兄弟〉 등 단 2편만 게재되어 있을 뿐 특별히 언급할 만한 문학작품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농민사의 농민운동은 이상에서 검토한 바처럼, 창설 초기에는 점진적 민족주의의 농촌계몽적 입장에 있었다가 1928년부터 1930년 4월까지 다소 현실주의적 사업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농민사 자체의 분열을 맞으면서 일제와의 타협적인 농민개량운동으로 다시 전환했다. 농민사의 이러한 3단계에 걸친 농민운동의 전개방향은 농민문학운동의 궤적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농민사 농민시의 현실표상과 그 유형

‘조선농민사’에서 주재한 《조선농민》과 《농민》에 발표된 농민시는 전체적으로 보아 당대의 다양한 농민현실을 취재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농민사의 농민계몽운동의 취지를 따르고 있는 작품이 상당수에 이르지만, 궁핍한 농민현실과 그에 따른 농민의 고난상을 들추고 비판하고 있는 작품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25년부터 1933년까지 약 9년 동안 발간된 《조선농민》과 《농민》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농민시 작품은 전체 150여 편에 이르는데,²³⁾ 이들 작품 중에서 농민시의 다양한 유형을 접할 수 있다. 농민사의 농민시는 농민대중의 접근을 위한 민요 형식을 수용한 민요시, 이야기체의 서사성을 도입한 서술시 등 한편으로 다양한 형식적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일제하의 구체적 농민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시의 리얼리티를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

22) ‘全朝鮮農民社’의 명의로 발행된 《朝鮮農民》은 제6권 제3호(1930. 5)와 제6권 제4호(1930. 6)이다. ‘진조선농민사’는 이 외에 별도의 기관지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다.

23) 1925년부터 1933년까지 발간된 《朝鮮農民》과 《農民》은 약 80여호에 이르지만, 일제의 검열로 인한 압수 조치와 그동안의 잡지 유실 등으로 인해 많은 잡지가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현재 약 60여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광순, “조선농민지의 내력”, 《朝鮮農民》영인본(보성사, 1977) 해제 참조.

고 농민사의 농민시를 통해 이동림, 임린, 허문일, 허수만 등 농민시를 전문적으로 쓴 시인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 점도 의의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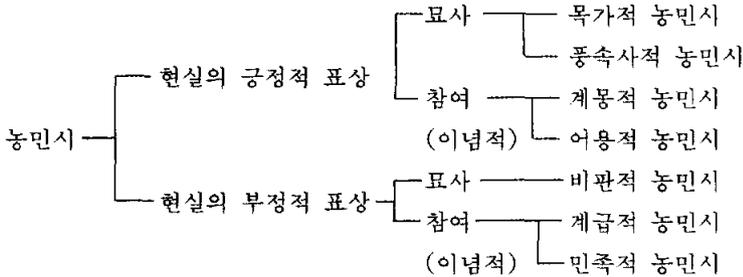
농민사의 농민시를 일단 본고의 논의 사항인 현실표상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지금까지 농민시는 내용 및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작품창작의 제통에 따라 여러 갈래로 분류된 바 있다. 서범석은 농민소설 쪽의 분류를 참고하면서 비판적 리얼리즘의 농민시, 계몽문학적 농민시, 프로문학으로서의 농민시, 풍속사적 농민시, 생산문학으로서의 농민시로 분류한 바 있고,²⁴⁾ 오세영은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민족적 농민시, 계급적 농민시, 목가적 농민시, 독자투고의 농민시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²⁵⁾ 그런데 이들 분류가 나름대로의 원칙에서 이루어진 만큼 참고할 부분이 많지만, 당시 민족주의문학이나 카프의 계급주의문학 등 집단적 문학이념이 우선되어 농민시가 자칫 획일적으로 분류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테면 ‘조선농민사’의 농민시는 실제 다양한 현실표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사의 점진적 민족주의의 농촌 계몽적 성격에 근거하여 작품 전체를 계몽주의적 농민시나 민족적 농민시로 일괄 분류되기 쉽다. 이는 카프에 가담한 시인의 농민시를 분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학집단의 이념적 성향이 그 집단에 속한 문학인의 작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 점만을 중시해서 작품의 경향을 일괄 규정할 수는 없다. 문학집단의 이념적 성향을 중시하면서도 개별 작품의 위상을 가능한 고려할 수 있도록 농민시의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고는 여기서 시에서 현실을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형상화하고자 했는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현실을 파악하는 관점은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겠지만, 범박하게 보아 현실을 긍정적 시각에서 보느냐 부정적 또는 비판적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관점은 이념상의 추구 방향에 따라 다시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관점은 현실을 관조하거나 찬미하는 낭만적 경향을 이루기도 하면서, 현실의 긍정적 개선에 역점을 둔 계몽주의의 이념이 작용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비판적 인식이 둔화된 채 체제순응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후

24) 서범석, 앞의 책, pp. 195~197.

25) 오세영, 앞의 글, p. 39.

자의 관점은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리얼리즘의 인식을 토대로 하면서, 현실의 비판과 참여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고취하는 쪽으로 나아가기도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의 현실인식 양상에 초점을 두어 농민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도표에서 우선 목가적 농민시는 농촌의 현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관조하고 예찬하는 시를 일컫는데, 기존의 농민시 논의에서 대체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목가적 농민시는 당시의 농민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면서, 뚜렷한 목적의식이 개입된 것은 아니지만 농민현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농민시의 개념에 포괄시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²⁶⁾ 다음 풍속사적 농민시는 농촌의 전통적 풍속이나 생활을 묘사한 시로 백석의 시를 대표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계몽적 농민시는 농촌계몽의 이념을 고취하고자 한 목적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어용적 농민시는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의 생산문학적 이념에 편승한 체제순응적 농민시이다. 어용적 농민시는 엄격히 따지자면 정통 농민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일제하 농민시의 전체적 양상을 반성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비판적 농민시, 계급적 농민시, 민족적 농민시는 농민현실의 부정적, 비판적 인식에 토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중 비판적 농민시는 농민현실을 비판적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표상한 시이며, 이에서 나아가 이념 고취의 내용에 따라 계급적 농민시와 민족적 농민시로 구분된다. 계급적 농민시는 농민의 계급투쟁이나 농민해방의 전위인식을

26) 오세영, 앞의 글, pp. 2020~2021에서 이 점을 논의한 바 있다.

적극적으로 고취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고 하겠으며, 민족적 농민시는 민족의 주체 의식과 민족해방의 의지를 피력하며 적극적 현실대응의 의지를 형상화한 시이다.

본고는 이상 농민시의 구분을 바탕으로 농민사의 농민시에 나타난 시의 현실표상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농민사의 농민시에서 주로 나타나는 농민시의 유형은 목가적 농민시, 계몽적 농민시, 비판적 농민시이며, 풍속사적 농민시와 민족적 농민시로는 몇몇의 작품을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런 점이 농민사의 농민시의 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 목가적 농민시

목가적 농민시는 앞서 언급했듯이, 농민현실을 긍정적 시각에서 관조, 동경, 찬미하는 시이다. 이러한 목가적 농민시는 농촌의 전원이나 그 속에 내재된 삶을 묘사하되, 자연친화의 관점에서 농촌의 건강하면서도 향토적인 삶을 주로 노래한다. 이런 시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목가시 또는 전원시의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그러나 오세영이 이미 지적²⁸⁾ 했듯이, 목가적 농민시는 자연의 산수나 전원을 단순히 묘사하거나 자연 자체의 의미를 탐구하는 목가시 또는 전원시와는 구별된다. 그것은 자연과의 친화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농민의 전원적 삶에 내포된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가적 농민시에서 전원적 삶의 의미 추구는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자연과의 친화관계에서 말미암는 것이며 내면의 정서 표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농민계몽이나 체제순응의 특정한 이념을 전제로 추구된 것이라면, 자연적 관계의 의미를 이미 상실하고 사회적 혹은 정치적 관계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경우의 시는 계몽적 농민시나 어용적 농민시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27) 전원시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때, 전원을 인간생활과의 한 매개 관계로 파악하면서 전원내 내포된 생활의 의미를 추구한 시를 전원시로 볼 수 있다 [李健淸, 韓國 田園詩 연구(文學世界社, 1986. 10), p. 13]. 이 경우 농촌의 전원생활을 묘사하면서 전원생활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추구한 농민시는 전원시에 포괄될 수 있다.

28) 오세영, 앞의 글, pp. 2020~2021.

따라서 목가적 농민시에서 묘사되는 농민의 전원적 삶의 내용은 다분히 개인적으로 추상된 자연의 서정공간 속에 자리잡게 된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풍요로운, 인간의 이상적 삶의 표준을 전원 속에 두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목가적 농민시에 묘사된 전원은 다분히 비현실적으로 상상된 관념세계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기초로 농민사의 목가적 농민시를 검토해 보자. 농민사의 초기에는 농민계몽의 선전적 의도가 많이 개입된 탓인지 목가적 농민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농민》에서 목가적 농민시로는 金九峯의 〈牧場에서〉(1928. 11)와 何心(金明昊)²⁹⁾의 연시조인 〈넋적을 憧憬하며〉(1929. 1)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우선 김구암의 〈牧場에서〉의 일절을 보자.

태양은 따우혜
 솟불 피우는듯 심흔데
 얼녘이 암소들은
 나무 아래 이리저리
 잠잠어 잇고나
 강낭콩 수수대
 눈노려 보는듯 심흔데
 심술구즌 가마귀떼
 그래도 날고 있다.
 굴내안한 말들이나
 도아지들이 사람없는
 들가에 사나울똥 심허도
 내가에 목욕하는 애들처럼
 샘가에 모여안저 물먹고 있다.

이 시에 묘사된 늦가을 농촌의 정경은 전형적인 농촌의 한가롭고 평화로운 모습이다. 각 연에서 중심 이미지를 구성하는 얼룩 암소, 가마귀떼, 말, 돼지 등이 농촌의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게 하면서, 그것들이 전원적 배경과 어울려 조화를 이룬 모습에서 평화로운 목가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는 직

29) 金明昊는 필명으로 외별, 孤星, 何心, 何心子 등의 필명으로 조선농민사의 초기부터 많은 논설과 여러 편의 농민시를 발표했다. 何心이 김명호의 필명임은 시 〈農村禮讚〉이 발표된 《朝鮮農民》 제3권 제11호 (1927. 11)에 목차에는 金明昊, 본문에는 何心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접적으로 농민의 현실적 삶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토속적 정취와 목가적 분위기 속에서 농민의 삶에 대한 자연친화적 긍정의 의미가 깃들어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이 시는 농촌의 그늘진 곳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밝은 면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목가적 농민시인 것이다.

이러한 목가적 농민시는 《농민》지에 와서 일대 경향을 이루며 나타난다. 여기에는 농민사의 농본주의적 중농의식에 토대한 시적 모색에서 농민계몽의 취지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농촌동경과 찬미의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식이 작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러 편의 계몽적 농민시를 발표하기도 한 李東林의 다음 시작품을 보자.

- ① 들엔 이슬맞은 靑田이 빛나고
 뒷동산 숲에는 杜鵑새가 울고 있다
 장에서 내려온 닭들은 뜰에서 모이를 줍고
 외양간에 황소가 기지개하는 때!
 아! 「움즈김」의 이층이다.

—〈早朝에〉의 일절³⁰⁾

- ② 앞산에 아즈랑이 봄비재촉코
 뒷산에 杜鵑花는 피여웃을때
 소몰고 연장지고 봄노래하며
 어이야— 더이야— 들노나가세

 기다리던 喜雨는 소낙비되고
 沃畝에 移植한벼 춤을출때엔
 샷갓에 누역입고 발빨니하야
 어이야— 더이야— 물대러가자

 살낭살낭 부는바람 수웃대흔들고
 광막한 벌판은 황금빛이라
 西山에 落照을 앓겨가면서
 어이야— 더이야— 걸우러가세

 하얀눈 大地에다 白衣입히고
 찬바람 뽕이불어 窓두다릴때
 등불이 쏙고잇는 사랑방에서
 어이야 더이야 잠지나보세

—〈四節農家〉³¹⁾에서

30) 農民 제3권 제6호(1932. 7).

31) 農民 제4권 제1호(1933. 1).

위의 두 시편은 공통적으로 농촌 들녘과 농가의 모습을 희망찬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①에서 靑田, 두견새, 닭, 황소 등이 토속적인 농가의 한가로운 정취를 자아내면서도, 생동하는 아침의 이미지와 어울려 있다. 시인은 이렇게 농가의 한가로우면서도 생동하는 아침의 풍경 속에서 농촌의 평화롭고 희망찬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 ②의 작품은 우선 한시를 비롯한 고전시가의 한 양식적 전통인 四時歌³²⁾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각 연마다 모내기 노래의 여음을 이용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시의 대중적 접근을 위한 시인 나름의 시적 모색의 결과가 전통시가의 수용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 시의 전체에 지배된 정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삶의 희망과 평화로움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농민의 삶의 터전을 감싸고 있는 비, 바람, 꽃, 눈 등은 그 자체 축복과 희망, 휴식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부조된다. 이 시의 각 연에서 봄비 : 두견화-봄노래, 회우 : 소낙비-춤, 바람 : 낙조-황금빛, 눈 : 등불-사랑방의 이미지들이 정서적 모순없이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처럼 이동림의 목가적 농민시에는 농민의 삶에 대한 긍정적 비전이 사회적 관계가 아닌 자연과의 친화적 관계를 통해 찬미되고 있는 것이다.

목가적 농민시는 林麟³³⁾의 농민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農民文學의 新規定³⁴⁾〉, 〈文學農民들에게³⁵⁾〉, 〈農民詩評³⁶⁾〉 등을 발표하며 농민문

32) 四時歌의 전반에 관한 논의로는 李圭虎의 〈四時歌의 文學史的 展開過程〉 [金榮喆·朴鎮泰·李圭虎 공편, 韓國詩歌의 再照明 (형실출판사, 1984. 8), pp. 460~485]이 있으며, 농민시를 중심으로 한 사시가(사계시)의 특징은 서법적이 검토한 바 있다(앞의 책, pp.260~271).

33) 《朝鮮文壇》제21호(1935. 2)의 〈朝鮮文壇新聞〉란에 林麟은 林然이란 필명으로 많은 시를 발표하면서 《農民旬報》의 편집을 맡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이로 보아 林麟은 본명이며, 林然, 林玄極, 林海彰 등 다양한 필명을 쓴 것으로 확인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林麟은 《朝鮮日報》(1935. 1. 1) 신춘문에 시 〈露宿者〉가 당선된 바 있으며, 1930년부터 1936년까지 《農民》, 《朝鮮文壇》, 《新文學》, 《新東亞》, 《詩苑》, 《新朝鮮》, 《東亞日報》, 《朝鮮中央日報》, 《朝鮮日報》등에 상당수의 시작품을 발표하고, 소설 및 문학론도 여러 편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34) 農民 제4권 제1호~제2호(1933. 1~2).

35) 農民 제4권 제3호(1933. 3).

36) 農民 제4권 제4호~제9호(1933. 4~9).

학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들 글을 통해 농민사의 농민 문학운동에 대한 당파적 입장을 매우 강경하게 펼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농민문학이 농민적, 집단적, 사회적, 동지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미래를 낙관하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지녀야 한다고 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이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① 밀보리밭 누런빛 금이널린듯
 보리비는 안악네 손길그림소
 모심은들 초록빛 푸른집인듯
 눈에선이 춤노래 한것부림소

 유월해빛 빛받아 잠자리날면
 푸른솔밑 논가에 두루미졸며
 나무새에 시연한 바람없히면
 향기로운 흙냄새 원들에차오

- 〈六月野景-농촌 스케취에 한쪽〉³⁷⁾

- ② 어화어화 상사디야 모심는소리-
 비인들을 물결처럼 흐를때마다
 물에풀닌 검은흙에 모님이꼬쳐
 별게버슨 흙의살을 잔털이돌소

 저이들은 새목숨을 흙속에꼬져
 조각흙에 가을피를 기르는그이
 제손으로 제목숨을 심는어른들-
 한낫이니 짐십이나 짓고들하오

- 〈모심을 때-榴夏絃景〉³⁸⁾

임린의 목가적 농민시는 이동림의 시에 비해 농민의 구체적 삶을 그런대로 투영하고 있는 편이다. 두 작품 공통적으로 농촌 들녘의 모심기 일을 취재하면서 희망적 삶의 편린을 묘사하고 있다. ①의 시는 '농촌 스케취에 한쪽'이란 부제가 붙었듯이, 유월 농촌의 아름답고도 한가로운 들녘의 풍광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 작품이다. '누런빛 금이널린듯'한 밀보리밭, "초록빛 푸른집인듯"한 모심은 들, 잠자리가 날고 두루미가 조는 들녘은 들노래와 춤, 시연한 바람, 향기로운 흙냄새와 어우러지면서 이상적인 농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

37) 農民 제3권 제7호(1932. 8).

38) 農民 제4권 제7호(1933. 7).

다. ②의 시는 모심기 노래의 여음인 “어화어화 상사디야”를 곁들이면서 삶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제손으로 제목숨을 심는” 모심기가 현실적으로 미래의 불확정적인 삶 속에서 고충섞인 일이지만, ‘가을 뉘’ 같은 수확과 ‘새목숨’을 기대하는 희망만이 이 시에 표상되어 있다. 이처럼 위의 두 시편은 농촌의 삶이나 현실에 대한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배제하고, 자연친화의 아름답고도 이상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류의 목가적 농민시는 특히 《농민》지 상에서 허다히 찾을 수 있다. 許水萬의 〈개고리〉(농민, 1930. 12), 張萬榮의 〈故郷에 돌아와서〉(농민, 1932. 8), 洪鳳雲의 〈農村의 가을〉(농민, 1932. 10), 桂樹의 〈黃昏〉(농민, 1933. 7), 白樂榮의 〈農村夕景〉(농민, 1933. 7), 崔一花의 〈밤길〉(농민, 1933. 8), 金朝奎의 〈이 날의 農村은—여름아침 農家風景〉(농민, 1933. 8) 등 여러 농민 독자의 투고시를 비롯한 작품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농본주의에 입각한 농민계몽이란 대전제 속에서 농민의 현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긍정적 시각을 조성하는 데 유효하다고 하겠지만, 일제하에서 날로 피폐화되어 가는 농민의 구체적 삶을 배제함으로써 현실 도피적 낭만적 회열의 의식을 무척 임하게 조장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민사의 농민시에서 목가적 농민시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농민사 전체의 농민문학운동, 나아가서 농민운동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2) 풍속사적 농민시

소설의 한 갈래로 풍속소설 또는 풍속사적 소설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뚜렷한 역사 의식이나 참여 의식이 없이 풍속과 세태를 주로 묘사한 소설이다. 서범석은 이런 풍속소설 또는 풍속사적 소설의 개념에 상응하는 것으로 농민사에서 ‘풍속사적 농민시’란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³⁹⁾ 필자도 이와 같은 견해에서 풍속사적 농민시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농민사의 농민시를 검토하고자 한다.

풍속사적 농민시는 농민의 생활과 삶을 묘사하되, 특별히 전래적 풍속이나 생활습속을 주로 형상화한 시이다. 전통적으로 농경이 위주가 된 생활 속에서

39) 서범석, 앞의 책, pp. 219~220.

전래적 풍속이나 생활습속을 형상화한 시가 농민시에서 쉽게 찾아질 개연성이 높다. 이는 농민시의 원형이 되기도 하는 구비전승의 민요에서 농경의례와 관련한 세시풍속이나 전통적 생활습속이 시적 상상력의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농민사의 농민시에는 풍속사적 농민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농민사 농민운동의 주요한 방향이 농촌의 유습이나 전통적 풍속을 봉건적 유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농민생활의 개선에 역행되는 것으로 타파 개혁할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기도 하다.⁴⁰⁾ 농민사의 관계자들은 전통적 생활풍속과 의식 속에 민족의 전통적 정서와 감정이 배여 있다는 점을 외면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농민사의 농민시에는 드물게 풍속사적 농민시를 몇 편 볼 수 있을 뿐이다.

- ① 팔월이라 한가위 달도 조치요!
 햇살송편 먹는맛 그더 조치요!

- <팔월(八月) 한가위> (李蕙淑)의 전문⁴¹⁾

- ② 씨름판 향소는/례장 갑인테/무심한 주인은/간산 가자네
 (후렴) 아이공 아이공/성화로구나/코아래 구멍이/괴원수로도
 송장계 술고기/저풀 보구려/남이야 울거나/노래 불넛소
 화스김에 술먹고/도라 오는데/박침지 나보구/난봉 낫다네
 담넘어 그네줄/치마 바람에/이총각 피눈물/다말니 우네
 동섯달 꽃본듯/저보랫 건만/야속한 하로해/서산에 지네
 꿈에나 내소원/다일을 것을/영감님 잔기침에/새벽잠 깬네

- <端午怨> (崔守福) 전문⁴²⁾

이상의 두 시편은 제목과 같이 세시풍속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①의 작품은 보잘것 없는 한 소품적 작품으로 팔월 한가위의 정황을 단순히 묘사하고 있다. 농민사의 농민시에서 이나마 드물게 보는 풍속시라는 점에서만 의의가 있다. ②의 시는 서도민요인 <긴아리>의 여음을 살린 민요시이면서, 단오날의 풍속을 담은 풍속사적 농민시이다. 씨름판, 제례, 그네타기 등 단오날의 구체적인 농촌 풍속을 시화하고 있는 셈인데, 이를 보는 시적 화자의 시선이 부

40) 이러한 취지에서 《朝鮮農民》 제2권 제3호(1926. 3)를 '迷信打破號'로 간행하면서 전통적 생활습속과 의식을 비판했으며, 이 외에도 《農民》 등에서 같은 취지의 논설들이 자주 실렸다.

41) 農民 제1권 제6호(1930. 10).

42) 農民 제4권 제6호(1933. 6).

정적인 점이 흥미롭다. 제2연의 “송장계 술고기/저풀 보구려/남이야 울거나/노래 불넛소”에서 보듯, 단오제례의 풍속을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릇된 작태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이 시는 ‘머슴군의 구슬은 노래’란 부제를 붙이고 있어서, 시적 화자인 머슴이 신세한탄의 한 대상으로 주인집의 단오날 제사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히 이 구절의 풍속 비판적 묘사는 농민사의 농민계몽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은 임해창(임린)의 다음 시에서 한층 분명하게 드러난다.

손자장개 드릴날 가려달난말—
 때는홀러 한없이 때도변커늘
 남이종단 그날만 믿고바랄가?

저잘하면 그날이 좋은날이지.
 저못하면 그날이 그른날이지.
 빙긋웃고 고른날 일에편한날!

—〈날바지—어느 시골 안악네의 날바지 청을 듯고〉에서⁴³⁾

이 시는 날반이란 전통습속을 시적 소재로 삼고 있는 풍속사적 농민시의 범주에 드는 작품이다. 전통혼례에서 길흉을 따져 날을 정하는 날반이는 전통사회의 한 풍속이다. 시의 화자는 변화가 무상한 날에 날반이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일에 편한 날’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진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농민계몽적 의도를 개입시키고 있는 계몽적 농민시로서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역시 목적의식이 개입된 만큼 시적 형상화에서 미비된 수준을 보이는 것이다.

이상에서 농민사의 농민시에서 드물게 보는 풍속사적 농민시는 전통의 풍습과 생활을 시적 소재로 삼고 있지만, 한편으로 계몽적 의도가 개입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점은 백석의 풍속사적 농민시가 풍속의 시화를 통해 민족적 일체감의 회복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⁴⁴⁾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3) 農民 제4권 제6호(1933. 6).

44) 李崇源, “風俗의 詩化와 諷刺의 詩學”, 朴好泳 李崇源 公저, 韓國 詩文學의 批評의 探究(三知院, 1985. 5), p. 262.

(3) 계몽적 농민시

농민사의 계몽적 농민시는 기본적으로 농본주의의 중농의식에 기초하여 농사와 농민을 예찬하고, 농민의 각성과 농촌봉사에의 임무를 찬양 선전하거나, 농민사 자체의 취지를 선전하는 등의 시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계몽적 농민시는 목가적 농민시, 비판적 농민시와 함께 농민사 농민시의 주류적 경향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농민》에 발표된 대부분의 시가 계몽적 농민시이며, 《농민》에도 1/3이 넘는 작품이 계몽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농민사의 초기에 발표된 다음 朴宗赫의 시를 보자.

農事는 神聖하다 天下之大本이다
 大本되는 農事를 싣타고 내버리고
 누구가 널오라게 붓집지고 가느냐
 言語와 風俗다른 他國他鄉 向하여
 네가면 어이하리 너살던 故鄉에는
 山川草木 낫넉고 동생親友 다있다
 너를 한時라도 도와주려 하거든
 너를 돕는故鄉이 싣타고 나가며는
 故鄉을 회고할때 밭서 이름났모를
 그네들의 논밭이다 이때는 호미들고
 농사할내 쓸데업다 네고을 네밭에서
 광이들고 소메겨 長男中男 할거업시
 갈고매고 거두어
 땀흐르는 其사이 네에幸運 니르리라
 幸福의 根源되는 나의 農村田園을
 永遠히 쓰러안고 幸運을 마즈라

—〈네 生命 農村을 두고 내 어데로 가느냐?〉에서⁴⁵⁾

이 시는 지은이가 ‘順安 朴宗赫’이라 하여 농민독자에 의한 투고시의 하나로 보인다. 그런 만큼 시의 형식도 개화기의 계몽적 가사에서 흔히 보는 가사체 율문양식을 따르고 있으면서, 시의 계몽적 의도를 짙게 반영한 교술 시이기도 하다. “農者 天下之大本”이란 농본주의의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시는 이향에 대한 우려와 경계 속에 귀농의식을 강조하면서 농사에 힘쓸

45) 朝鮮農民 제2권 제10호(1926. 10).

것을 권고하고 있는 작품이다. 1924년 이후 해가 갈수록 소작농은 적자를 면치 못해 빈농으로 전락하고, 만주, 러시아, 일본 등지로 떠나는 유이민의 숫자는 급증했다.⁴⁶⁾ 이 시는 이런 현상을 우려하며, 이항과 귀향의 대조적인 삶의 의미를 제시하면서 농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갖는 고향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타국타향으로의 이항은 언어와 풍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아무도 반겨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행복도 보장받지 못하지만, 고향은 낮은 자연과 친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비록 당장은 살기가 어렵지만 서로간의 도움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향을 지키며 농사에 힘쓸 때 미래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의 메세지인 것이다.

농본주의의 중농의식은 농업 자체의 예찬으로 연결되는 동시에 농민의 농사에 대한 보람을 긍정하고 농민의 역사적 소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다음 몇 작품을 보자.

① 천방울 만방울／일꾼의 땀방울／논밭때 밧맬때／흙니는 핏방울／／피땀의 거름에／만곡이 길길이／인간이 길길이／칩니다 됩니다
- 〈땀〉(林然) 전문⁴⁷⁾

② 우리들은 땅을 파는 농군들
이 사회에 한아인 생산자이다
보라! 우리들이 손을쉬이면
논과밭은 누가 뒤지며
쌀과 콩을 누가 만들가?

우리들은 농군들
만백성의 생명을제조하는자!
그러나 배브른자들
농군의 주린배를 알지못한다
우리들의 손목을 누가익갈가?

- 〈農民의 隨呼〉(月影)에서⁴⁸⁾

46)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정식, “농민혁명의 사회적 기초”, 淺田喬二 외 저, 抗日農民運動研究(동녘, 1984. 5), pp. 246~249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47) 農民 제1권 제1호(1930. 5).

48) 農民 제3권 제1호(1932. 1).

③ 물결친다. 물결친다.
 우리피땀잉키여서 열매맺은곡식이
 온-뜰에 평퍼져서 금물결친다.
 나아간다. 나아간다. 낫을들고 나아간다.
 온가족이 즐지여서 들-로나아간다.
 누런소는앞을서고 검둥개는뒤떨오네.
 오오! 총칼을둘너매고 준마를몰아 전지로나아가는
 군대의살기등등한 행렬보다도
 낫들고 추수하려나아가는 농군의 평화로운행렬!
 오! 반가운 행렬이다!

휘들은다. 휘들은다.
 농군들이 걸힘없이 휘들은는 낫바람에
 제시질이라고 웃줄웃줄추추던 억만의곡식이
 줄줄이 줄줄이 쓸어져버린다.
 오오! 적병을죽치는 장-사의 피땀은청룡도 보다도
 억만의곡식을 모조리목베히는 농군의낫!
 오! 平和의 武器다.

~ 〈農村所見〉(三峯)에서⁴⁹⁾

위의 세 작품은 농민의 농사일에 대한 보람과 농민의 사회적 위치 및 임무를 읊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여기서 '농민의 사회적 위치와 임무'란 농민사의 농민문학론에서도 거듭 강조된 바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농사일을 맡은 농민의 직업적 위치와 책무에 관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위의 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하겠다. ①은 농민의 소중한 피땀의 의미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소품이며, ②는 농민의 사회적 위치를 '이 사회에 한아인 생산자'이면서 '만백성의 생명을 제조하는 자'로 표현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를 지도하는 농민사의 역할을 선전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이들 두 작품에 비해 비유적 표현에서 다소 나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三峯(허문일)의 시 ③도 역시 농민의 사회적 역할을 계몽적 관점에서 예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추수를 하러 가는 농부의 행렬을 적지로 나아가는 군대의 행렬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행렬은 '평화로운 행렬'이며, 곡식을 추수하는 그들의 낫은 '평화의 무기'라고 힘찬 어조로 표현했다. 말하자면 농부를 평화의 사자이니 평화의 여신이니 하면서 미화하여 농부의 사회적 위치와 책무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49) 農民 제3권 제11호(1932. 12).

농민사의 계몽적 농민시는 중농주의의 취지에 따라 농민의 도시지향 의식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청소년의 허영과 방종을 경계하는 작품으로도 나타난다.

- ① 벼한섬에십원도못가건만물건갑슨떠러질줄모르네
 그러켓만 아들놈은금시계에백원짜리양복만!
 딸년은가죽신에비단치마만!
 그러켓만애비애미는누택이옷에차디찬조밥만!
 그러켓만아들딸은료리집연극장출입만!
 아하 이러다간우리게 닥칠진더큰서름만, 죽음만.
 깨다러마음껏일해야우리게올것살길만, 우습만.

—〈一九三〇年 秋收期〉(林然) 전문

- ② 虛榮에 마음뜬 處女들이여
 장사집에 시집을 가고싶으나
 그렇자 않으면
 월급쟁이에게 가고싶으나
 都市를 憧憬하는 철없는 處女들이
 아침에 男便을 내어보내고
 男便의 職業이 뭐인지도모르고
 원종일 혼자서 애를태움보다는
 夫婦가 다같이 들에살면서
 나아가며 돌아올제 돌이단이며
 같이 말하면서 김을매던은
 어느누가 敢히 是非할텐가
 綠陰속에 들어가면 納涼國이요
 밭머리에 넓은바원 食堂이란다
 돌이서 뗏이라고 속살거리면
 이世上의 平和를 獨차지한듯
 都會의 색시들이 얼마나부러우냐

—〈村處女〉(李生) 전문⁵⁰⁾

시 ①은 추수기를 맞이했어도 “벼 한섬에 십원도 못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으면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빈궁한 농촌현실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도시지향의 허영과 방종을 일삼는 데 대한 정신적 각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농촌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분수에 맞게 지내는 것이 살 길이며, 이를 깨닫지 못할 때는 죽음에 이르는 실용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시는 근면과 절제의 미덕을 앞세워 농민의 정신적 각성을 시적

50) 農民 제3권 제6호(1932. 7).

의도로 삼은 만큼, 농민의 궁핍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 문제인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ㄴㅈ生(백세명)⁵¹⁾의 시 ②는 ①과는 다른 시각에서 농촌 처녀의 허영에 찬 도시지향의식을 경계하고 있는 작품이다. 도시보다 농촌이 부부의 사랑을 돈독히 가지면서 자연과 벗삼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도시의 처녀들이 부러워하는 곳이 농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말하자면 농촌을 이상적인 삶의 낙원으로 찬미하면서 도시지향의 허영심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②의 시는 농촌의 처녀들이 근본적으로 일제하의 궁핍한 농촌현실을 견디지 못해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나고자 한다는 사실은 배제한 채, 그들이 단순히 허영에 들떠서 도시를 동경한다고 해서 엉뚱한 오해를 빌미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는 계몽적 의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시를 쓴 그들 스스로 일제하의 농민현실에 대한 근본적 문제인식을 회피하고 있거나 무비판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제의 농촌수탈을 방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농민사의 계몽적 농민시는 그럼에도 농민계몽의 지도적 입장에서 흙의 노동적 가치만을 강조하고, 무지한 농민을 깨우치는 농촌봉사의 임무만을 예찬했다.

대중은 그와같은 리론만은 너무나 시들어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농촌으로 들어가서 무식한 농민들에게
「한자라도 가르쳐야하겠소이다.
당신네는 편히앉아서 리론들이나 하시오.」
잡니다. 잡니다. 나는잡니다.
책상을 떠나서 나는잡니다.
리상을 떠나서 실천으로
농촌을 찾아서 나는잡니다.

—〈나는 잡니다〉(許文日)에서⁵²⁾

이 작품은 지나친 직설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라고 하기에는 수준

51) 《農民》지에 'ㄴㅈ生'으로 발표된 작품은 〈幸福〉, 〈村處女〉(이상 1932. 7), 〈정령감의 걱정〉(1932. 11) 등 3편이다. 그런데 'ㄴㅈ生'은 아마도 '한빛'에서 받침표기만을 따로 떼어 필명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한빛은 白民, 一光 등의 필명을 쓰기도 한 白世明인 점을 감안하면, 'ㄴㅈ生'도 백세명의 다른 필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52) 農民 제4권 제2호(1933. 2).

미달이다. 이상적인 이론보다 농촌의 현장에서 체험으로 겪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농민계몽의 봉사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농민사의 계몽적 농민시가 보여주는 농민현실의 인식 방향만을 참고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작품으로는 金震花의 〈村落의 救世主가 되라〉(농민 제4권 제6호, 1933. 6)가 있는데, 이 역시 이론보다 현장 실천을 통해 농민을 계몽하는 ‘농촌의 구세주’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시이다. 여기서 농민은 한결같이 지식인의 시혜적 대상으로 무식하고 무지하며, 지식인은 이들을 지도 계몽하기 위해 농촌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30년대 들어 농민의 문맹퇴치를 위해 펼쳐졌던 이른바 ‘브나로드 운동’을 상기하게 하는 것이면서, 농민사의 농민사원들에 대한 문맹퇴치와 교양함양을 위한 운동에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농민사의 계몽적 농민시는 문맹퇴치의 농촌계몽운동을 선전하는 한편, 특별하게 농민사의 공생조합을 통한 경제협동의 농민운동을 선전하기도 했다.

돈취고도 사쓰랴면 겹겹이속아
다투랴면 욱만먹고 도라스든몸!
그린몸들 모혀만든 거룩한이집
이한집은 우리목숨 믿을곧일세.

믿음으로 목숨삼는 우리가개라
물건마다 싸고좋다 에누린없네
리틀주어 살니라는 이곧에몰여
서로돕고 가치번져 뿌리를박세.

- 〈조합 노래〉(林海彰)에서⁵³⁾

‘조선농민사’는 지방농민사 내에 간선부를 두어 소비와 생산의 협동관리를 해 나가다가, 1931년에 조직을 변경하여 ‘농민공생조합’을 설치하고, 그 아래 소비, 생산, 신용, 위생의 각 부를 두어 운영해 나갔다.⁵⁴⁾ 농민공생조합은 “반도의 농촌사회에 수로 하여써 농촌경제조직을 합리화시키며 농민대중의 경제적 이익과 협동생활을 실현케 하여써 농민대중의 경제적, 사회적 소원을

53) 農民 第4권 제12호(1933. 12).

54) 柳世熙, 앞의 책, p.310.

이루어주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요즈음의 농업협동조합을 연상케 하는 기구였던 것이다. 위 시는 바로 이러한 농민공생조합의 취지를 선전하려는 의도의 계몽시이다. 농민들이 물건을 사려면 속기 쉽고 애만 쓰이는데, ‘거룩한 이 집’인 농민공생조합을 통해 값싸게 물건을 사고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는 이렇게 농민사의 공생조합을 통한 경제협동의 농민운동을 장려, 선전하기 위한 목적시인 것이다.

이상에서 농민사의 농민시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계몽적 농민시를 주요 사항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대부분의 계몽적 농민시가 농민계몽의 선전적 의도가 앞서 있었던 만큼 관념적 서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제하의 농민현실에 대한 근본적 문제인식을 갖지 못하고 비현실적이면서 추상적인 현실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농본주의에 입각한 중농의식의 지나친 합리화와 이에 기인한 농사와 농민의 일방적 예찬, 농민의 도시지향적 허영과 방종의 경계, 지식인의 시혜적 농민의식에 따른 농촌봉사에의 임무 고취, 경제협동의 정신 고양 등이 농민사의 계몽적 농민시들이 보여준 농민계몽의 추구 방향이었다.

(4) 비판적 농민시

농민사의 농민시들이 비현실적 농촌의 묘사나 농민계몽의 관념적 추구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농민사의 농민시 중에는 일제하의 농민현실에 대한 구체적 문제인식을 비판적 관점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시편들도 상당수를 이룬다. 농민사의 목가적 또는 계몽적 농민시들이 대체로 농민사의 온건한 농민계몽운동의 취지에 따라 농민현실의 구체적 문제인식보다는 농본주의 정서적 감응이나 이념적 구원에 치중된 것이었다면, 비판적 농민시는 농민현실에 대한 구체적 문제인식과 더불어 농민들의 현실적 고충과 요구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농민사의 비판적 농민시는 농민대중에 대한 현실적 공감대와 지지기반을 마련하려는 문학적 노력의 형상물이기도 하다.

비판적 농민시는 농민현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표상에 따라 다시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도시적 삶과 풍조에 대한 비판의식을 주로 표현한 것, ② 농민의 궁핍한 처지와 노동의 고충을 표현한 것, ③ 특히

농민의 이농에 따른 유이민의 삶을 각별히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들, ④ 일제의 농촌정책이나 제도를 직접 비판하고 있는 시들이 그것이다.

그러면 먼저 첫째 유형의 비판적 농민시들을 검토해 보자.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許文日의 시 여러 편을 비롯하여, 劉煥豐의 〈땀〉(농민, 1931. 7), 朴靑呑의 〈홍을 불 것이냐〉(농민, 1932. 3), 北風散人(許水萬)의 〈서울 狂想曲〉(농민, 1932. 10)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작품은 허문일의 시이다.

- 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逃亡을한다.
 물길으며 신기조튼 뒤투리집신
 고무신 바람에 逃亡을한다
 암으렴 그러치 그러코말고
 신장사 金兪知는 밥끓어죽었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逃亡을한다(이상 각연 반복)

三代째 내려오든 ㄴ그릇대통
 洋券煙 바람에 逃亡을한다
 암으렴 그러치 그러코말고
 洋卷煙 煙氣에 집날아간다.

김잘매고 베잘짜든 맛머누리는
 洋갈보 바람에 逃亡을한다
 암으렴 그러치 그러코말고
 정강치마 수통다리 풀못보겠다.

목숨줄기 부쳤든 올벼직이는
 新作路 바람에 逃亡을한다
 암으렴 그러치 그러코말고
 自動車 몬지에 눈뿔뜨겠다.

- 〈新아리랑〉에서⁵⁵⁾

- ② 고무신 관리통에 쫓기여난 집신짜이
 오양간에 매달너서 구습호게 울어대네
 고무신 생겼다고 집색이 천대말게
 한아버지 한머니가 신으시든 유물일세

55) 朝鮮農民 제5권 제5호(1929. 8).

떨어진 집신작이라고 함부로야 내버릴까
 밤쌀떡쌀 길너내인 벗집으로 삼았다네
 짐새이 버서노코 경제화 사신든눔
 논팔고 밭팔으니 경제화가 걱정할세
 짐새이 구박하고 깃도구도 사신든눔
 구두쇠가 물녕쇠되니 물녕쇠는 녹을 세

- 〈신타령〉 전문⁵⁶⁾

이상 두 작품은 모두 三峯 許文日의 시편이다. 허문일의 문학적 이력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농민시의 시인 중에 가장 활발한 문학활동을 보여준 시인이다. 그는 시 외에도 〈농민시 작법〉, 〈농민소설 짓는 법〉 등의 문학론과 여러 편의 소설, 희곡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유별나게 농민문학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 창작에도 열심이었던 것 같다. 그는 임린으로부터 “농부의 심리를 잘 아는 문학농민”으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⁵⁷⁾ 《농민》지가 폐간된 이후에도 농민문예에 꾸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⁵⁸⁾ 허문일의 시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농민현실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함께 시창작의 남다른 면모를 찾을 수 있다.

①의 작품은 우선 전승민요인 〈아리랑〉의 여음과 가락을 이용한 민요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 민요 〈아리랑〉은 일제하의 민족 사이에 은밀히 전승되면서 항일의 지하방송 같은 역할을 했는데, ①의 시는 〈아리랑〉의 이러한 생명력을 창작시에 잇대어 일제하의 농민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된 시에서 제1연은 고무신과 짚신을, 제2연은 양권련과 늦그릇 대통, 제3연은 양갈보와 농촌의 근면한 여인, 제4연은 신작로와 오레논(올벼직이)를 각각 대응시키면서, 전자 때문에 결국 후자가 망조를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전자는 도시화, 문명화의 상징들이

56) 農民 제1권 제5호(1930. 9).

57) 林海彰(林麟), “農民詩評”, 農民 제4권 제5호(1933. 5).

58) 《朝鮮文壇》제21호(1935. 2)의 〈朝鮮文壇新聞〉란에 ‘詩人 許文日氏’란 항목의 기사가 있다. 이에 의하면 許文日은 《中外商工》이란 신문의 문예란의 편집을 담당하면서 여러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아직 이 신문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신문에서 그의 작품이 상당수 더 찾아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면서 농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들이며, 후자는 전통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를 상징하면서 농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 시는 따라서 농촌의 도시화, 근대화의 바람에 밀려서 전통적 삶의 양식과 가치가 파괴되고 있는 농촌의 피폐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요 〈아리랑〉의 여음은 흥취를 돋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비극적 정황을 고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요 〈흥타령〉의 여음을 이용하여 비판적 현실표상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민요시 〈흥타령〉(농민, 1930. 5)도 있다.

②의 시는 ①의 시 제1연의 시상을 한층 확대시켜서 변화하는 농촌현실의 심각성을 그리고 있는 풍자적 작품이다. 고무신에 밀려 짚신이 소용없게 되었다고 현실을 단순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자 쓴 시는 아니다. 짚신은 “한아버지 한머니가 신으시든 유물”로 대대로 이어온 민족의 전통적 삶의 한 표징이며, “밥쌀떡쌀 길너내인 벧집으로” 삼은 것으로 농민의 피땀이 서려 있다. 그러니 짚신이 고무신에 밀려난다는 것은 경제적 유용성의 측면에 대한 문제인식에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족의 전통적 삶의 파탄과 농민의 삶의 파멸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이 시의 제4연과 제5연은 바로 이러한 문제인식을 담고 있다.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고무신을 경계화라 하여 사서 신는 허영의 풍조가 만연하니, 결국 논밭을 팔기까지 하는 격정스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풍자한 것이 제4연이다. 그리고 제5연은 일본신인 ‘깃도구두’와 짚신을 대응시키면서, 민족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일제를 추종하는 세태를 간접적으로 풍자한 다음, ‘깃도구두’의 구두쇠가 결국은 물렁쇠가 되고 녹을쇠가 된다고 하여 일제에의 추종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이처럼 단순히 보면 짚신 타령 정도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 일제하의 농민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비판적 농민시의 둘째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은 농민의 궁핍한 현실을 재재로 하는 만큼 여러 시인에 의해 많은 작품이 발표되었다. 이 유형의 농민시에는 이처럼 임린, 허문일, 허수만, 백세명, 이동림 등 농민사의 주요 시인들에 의해 발표된 작품도 있지만, 농민독자로 보이는 여러 농민시인들에 의해 투고된 작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비판적 농민시가 농민현실의

리얼리티를 그만큼 폭넓게 보여주는 측면이라 말할 수 있다.

- ① 마누라요 아들놈아 주린배쥐고
 춤을캐러 산으로나 올라가보자
 주린탓에 비를거름 속아프구나
 산지기께 쫓기다가 박서방처럼
 배랑위로 굴러나리 아조못살라가
 겁버리고 캐러가자 할수가있니.

- 〈흙뿌리 캐는 날〉(林玄極)에서

- ② 한재에 남은 수재에 남은
 벼대를 거두려 낫들고 갖드니
 아이공 아이공 성화로구나!
 지주놈 바람에 다날러갓네.
 먹어야 살겠는 세상이길내
 피땀을 흘려도 주리기만하니
 아이공 아이공 성화로구나!
 막다른 황천이 보다낫겠네

- 〈嘆息〉(金東洛) 전문

- ③ 이세상엔 불상하고 원통한사람 너무나 많다
 시무고 김매고 걷우고 타작까지 하고서
 혈벗고 굶주리는무리 너무나 많다
 건넌집 수복이네는 원한해 지은곡식으로
 모도다 빗갠아주고 먹을것은 조금도없는데
 어제는 지주한테 농터까지 빼앗기고서
 단네식구가 갈곤없어서 왕왕들 울고만있다

- 〈갈 곤 없는 小作人〉(洪龍翊)의 일절

①의 〈흙뿌리 캐는 날〉은 극도의 궁핍에서 주린 배를 면하기 위해 흙뿌리를 캐어 먹고 연명해 가는 농민의 비참한 현실을 담고 있다. 이 시에 묘사된 농민 일가의 극한의 주린, 흙뿌리를 캐러 산에 갔다가 벼랑 위로 굴러 떨어져 죽은 박서방의 비참한 삶, 이런 것들이 파멸 직전의 위기적 농민현실을 반영하면서 비극적 실감으로 와 닿는 것이다. 농민들은 극도의 궁핍에서 흙뿌리를 캐어 먹으면서 허기를 면하려 했듯이, 봄에는 보리뿌리를 캐어 죽을 쑤어 먹거나 아카시아 꽃잎을 따서 국을 끓여 먹기도 했다. 이른바 보리고개를 당하여 그것도 모자라 굶기를 밥먹듯 하며 지내기 일쑤였고, 농군들은 농지를 떠나 사방공사 등 노동판을 전전하고 여인들도 굶다 못해 도시의 갈보나 기생으로

팔려가기도 했다. 임린의 다른 시 〈시골 안락네 노래〉는 바로 이러한 농촌의 비극적 현실을 매우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②의 시 〈嘆息〉 역시 농민의 탄식 속에 극한의 비극적 농민현실을 보여주시는 마찬가지이다. 농민이 피땀흘려 짓는 곡식이 한재와 수재를 겪으면서 이미 반분이나 털려 나가고, 그나마 남은 곡식을 추수해 보아도 결국은 지주에게 다 뺏겨 버리는 현실, 그래서 극한의 주립만 반복되는 현실을 이 시의 농민자아는 ‘막다른 황천’보다 낫겠다고 탄식하고 있다. 이 시는 이처럼 죽음보다 못한 일제하 농민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농민의 탄식이 분노 섞인 감정표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자아의 탄식과 분노가 “아이공 아이공 성화로구나”란 민요 〈긴아리〉의 여음을 삼입시키면서 비극적 감정표출의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도 이 시의 한 강점이 된다.

파멸 직전에 놓인 농민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탄식과 분노는 ③의 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다. 소작인의 한 가계인 ‘건넌집 수복이네’의 비극적 파탄이 중심이 된 이 시는 단순히 특정 가계의 비극적 삶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1행부터 “이세상에 불상하고 원통한사람 너무나 많다”고 하여, 소작인 수복이네의 빼앗기고 쫓기는 삶이 일제하의 농민 전체에게 드리워진 비극적 삶의 굴레임을 표시하고 있다. 이 시가 발표된 1년 전인 1932년의 지주, 자작농, 소작농의 계층별 농가비율에 대한 한 통계에 따르면, 지주 : 자작농 : 소작농(자소작농 포함)의 비율은 3.6% : 16.2% : 78.1%로 나타난다.⁵⁹⁾ 이처럼 약 80%에 이르는 소작농의 농가비율은 농민의 대부분이 궁핍에 허덕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소작농들은 지주에게 평균적으로 수확의 50~60%를 소작료로 지불했고, 거기에 농지세, 수리조합세 등 각종 세금과 종자대, 비료대 등을 농민이 부담해야 했으니, 소작인 몫으로 남는 것은 수확물의 극히 적은 일부이거나 적자에 몰리게 되었던 것이다.⁶⁰⁾ ③의 시는 다소 직설적인 표현에 시적 긴장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소작인 ‘수복이네’ 일가의 비극적 삶의 굴레를 통해 바로 이러한 일제하 소작인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또한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59) 이 통계는 鈴木正文, 朝鮮經濟の現段階(東京, 1938), pp. 437~439에 나와 있는데, 이정식, 앞의 글, p. 243에서 재인용했다.

60) 이정식, 앞의 글, pp. 245~247 참조.

이상의 농민시에 나타난 농민의 비극적 삶의 모습은 유이민의 삶을 묘사한 시에서 더욱 극적으로 제시된다. 가난과 빛에 시달리다 농지조차 빼앗긴 소작농들이 살 길을 찾아 일본이나 간도 등지로 유랑의 길에 오른 삶의 비극적 역정이 농민사의 농민시에서도 뚜렷하게 각인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허문일의 <우리의 살림>(농민, 1930. 8), 崔守福의 <내 身勢>(농민, 1932. 4), 吳栗嶺의 <離鄉의 淚>(농민, 1933. 1), 崔一花의 <뿌리 없는 希望>(농민, 1933. 11) 등의 작품과 金岸曙의 시 <東路坊川>(농민, 1932. 9)과 <滿洲서>(농민, 1932. 12)가 유이민의 삶을 묘사한 농민시이다. 다음 작품을 보자.

젓풀이 흐르는 내땅버리고
 남의집 종사리 웬말이런가
 해마다 봄오면 고향간다고
 十여년 별너도 같길이야득
 (후렴) 우러라 울러라 애 은소리
 山넘고 바다건너 따갯까지에

내어려 울적에 열또일곱살
 지금은 반남아 설은또아홉
 온몸에 살이란 모다떠러져
 이재는 뱃마디 헤게되었네
 ……(3연 생략)……

병든어머니의 신음소리와
 굶주린아희의 아우성소리
 두소리합하야 뒤끝는판에
 이내간장 다녹아나네

四國의 총소리 끈치지않아
 그금에 내生命 風前的燈火
 이몸이 어찌해 죽는다한들
 그어느 서러워 눈물흘리리

내죽어 남의땅에 왜못치라
 내땅에 못쳐서 거름되랴네
 동무여 신들매 예비하여라
 그리운 고향에 어서들가세

- <내 身勢>(崔守福)에서

이 시는 일찌기 이국타향으로 유랑의 길에 오른 한 유이민이 20여년이 흐른

뒤 조국 고향에 대한 간절한 동경을 담으면서, 그동안 유이민이 겪은 고통스런 삶을 표상하고 있다. 여기서 유이민의 고통스런 삶은 제2연의 “은몸에 살이란 모다떠러져/이제는 마디 헤게되엿네”의 구절에서 보듯, 온갖 고충 속에 지내온 세월이었고, 그래도 제4연의 “병든 어머니의 신음소리”와 “굶주린 아희의 아우성소리”에서 처럼 여전히 병고와 가난 속에 지내야 하는 고통의 세월이었다. 여기다 제5연의 문맥은 사방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아가 불안한 삶의 위기감에서 통한 섞인 향수애마저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삶의 고충과 고통이 극한에 들수록 고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가중되는 법이다. 제1연과 제6연의 의미상 수미상관을 이루는 구절에서 감지되는 간절한 고국애와 고향애의 그리움은 바로 이런 것이다.

岸曙 金億도 이런 유이민의 비극적 삶과 심정을 담은 시, <東路坊川>과 <滿洲서>를 <농민>지에 발표했다. 김억은 농민사에 직접 관계한 시인은 아니지만, 농민사 측에서 기성시인의 시를 실어 농민문학의 위상을 높이려 한 데서 이에 응하고 작품을 발표했던 것 같다. 이렇게 발표된 작품 중에서 <東路坊川>은 金素月の <나무리별 노래>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즉, 시 텍스트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고향 ‘동로방천’과 이미지 ‘서간도’의 대조적 삶의 상황을 그리면서 이민지에서의 고난과 향수애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滿洲서>는 서사시 <지새는 밤> 중에서 제15장과 제16장을 재발표한 것⁶¹⁾으로 역시 만주 유이민의 비극적인 삶을 서사적 문맥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이 시와 함께 늙은 농민 부부의 비극적 삶을 서사적 문맥에 담고 있는 李東林의 <農村의 밤>(농민, 1933. 1)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비판적 농민시의 마지막 유형으로 일제하의 여러 농업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작품들을 보자. 비판적 농민시의 대부분이 사실 일제의 농정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고 하겠는데, 그것이 한층 구체적 문제인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 유형의 농민시이다.

61) 金億의 서사시 <지새는 밤>은 <東亞日報>에 1930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18회 연재된 바가 있다. 시 <滿洲서>는 <지새는 밤>의 ‘滿洲’편(제15장~제24장) 중에서 첫 3장(제15장~제17장)에 해당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逃亡을한다
 매근매근 먹기조른 쌀을벼쌀은(芒早稻)
 胡米조 바람에 逃亡을한다(滿洲粟)

- 〈신아리랑〉(許三峯) 일절⁶²⁾

이 시의 단순한 듯한 구절에서 당시 일제의 미곡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1920년대에 들어와 시행된 일제의 산미증산계획은 그 시행과정에서 증산된 조선쌀이 농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본으로 유출되어 가는 결과를 빚는다. 일제는 쌀 수출의 미명 아래 “매근매근 먹기조른 쌀을벼쌀” 즉 오래벼의 조선쌀을 대량으로 자국에 유출해 가고, 그 대신 만주의 호밀이나 좁쌀을 들여 왔다. 결국 조선쌀은 만주미인 “胡米조 바람에 逃亡을” 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 결과로 조선의 농민은 힘써 지은 쌀을 먹지 못하고, 만주 호밀이나 좁쌀로 연명하거나 춘궁기에는 그것도 구하기 힘들어 초근목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앞에서 검토한 바 있는 임린의 〈흙뿌리 캐는 날〉이나 〈시골 아낙네 노래〉 등에 나타난 농민의 궁핍한 현실표상이 바로 이런 상황을 묘사한 작품들이다.

보리타작 씨뿌리기 한창밭분대
 누에고치 따가지고 읍내로가네
 누에천이 김입는이 따로잇는가
 빗재촉에 먹을것이 당장없는탓
 고치지고 고개고개 넘어를가네
 먼저간이 되오기에 웬까닭인가
 물어보니 말도말게 난안팔앗네
 한관값이 일등이야 일원륙십전
 한관이면 두말가웃 억울도하지
 품값뽕값 치고보면 셈이나되나?

- 〈공동판매날〉(林然)에서⁶³⁾

이 시의 화자는 누에고치를 공동판매하는 날 터무니없이 폭락한 고치값에 낙담하면서, 그렇게 된 억울한 사정을 분노섞인 어조로 호소하고 있다. 농민이

62) 朝鮮農民 제5권 제5호(1929. 8).

63) 農民 제3권 제7호(1932. 8).

힘들고 바쁜 농사일 중에서도 누에고치를 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 시에 표명된 바와 같이 “빛재촉에 먹을것이 당장없는탓”이다. 1920년대 말엽에 일본에 몰아닥친 세계적 경제공황의 여파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그 파급의 피해는 조선의 농민들에게 떠넘겨졌다. 농민들은 풍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곡가의 폭락과 일제의 수탈로 수지를 맞추기는 커녕 오히려 부채만 지는 꼴이 되었다. 이른바 ‘풍년공황’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가격은 100근당 1925년에 11원 4전이던 것이 1931년에는 4원 63전으로 떨어졌고, 누에고치 값도 1판당 1929년에 7원 56전이던 것이 1931년에 1원 89전으로 폭락했던 것이다.⁶⁴⁾ 이 시의 화자는 이러한 농산물 가격의 폭락 현실에 직면하여 “품값뽕값 치고보면 썸이나되나?”라고 항변조로 물으면서도 농민의 궁한 현실에 밀리고도 고치를 팔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임린의 시 <이런 일도 잇단 말요>도 이와 비슷한 사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런일도 잇단말요? 억울도하지! 들어좀보소.
 도지실고 구벽구벽 고개고개 넘어갔더니,
 이른곧은 선산습내 아모개내 도지받는뜰—
 벼열말에 말세한되식 처받음되다.
 돈으로 내면 오전이나되는벼한근을룩전식처받음되다.

이런일도 잇단말요? 억울도하지가 들어좀보소.
 예란곧은 경기도라 여주땅 아모개내집—
 키로도 너넉할걸 풍뎡이로 올벼를 쌀처럼부처받되
 일군이란놈은 제힘껏 박박늘너되되다.
 한껏잘되여실고갓던 너섬지기도 닷말이나 줄다니.

이런일도 잇단말요? 억울도하지가 들어좀보소.
 이곧은죽산이다 돈모는이 거름장사로 눈이 안곧—
 땅넘자가 거름만히하라고 야단치는통에 외상거름을 썼더니,
 봄에준 이원십전자리 암모니아 한가마니값에다
 가을되자 한근에 오전도넘는벼를 일백이십근이나 가져갑되다.

— <이런 일도 잇단 말요>에서⁶⁵⁾

64) 이러한 ‘풍년공황’의 자세한 사정과 시적 반응은 尹永川, 韓國의 流民詩(실천문학사, 1987. 4), pp. 34~48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를 농민시의 문체와 관련하여 서법석이 검토했다(앞의 책, pp. 144~148).

65) 農民 제4권 제2호(1933. 2).

이 시의 화자는 3연에 걸쳐 각 연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놓여 있는 소작농민이다. 제1연의 화자는 '선산읍'에서 폭락한 미곡가에 턱없이 비싼 도지세를 물어야 하는 소작농민이며, 제2연의 화자 역시 '경기도 여주'에서 지주의 횡포에 부당하게 도지세로 미곡을 수탈당하는 소작농민이다. 그리고 제3연의 화자는 '죽산'에서 외상 비료를 사용했다가 비료상인에게 엄청난 폭리로 비료값을 물어야 하는 소작농민이다. 이처럼 이 시는 지주의 횡포와 중소자본가인 비료상인의 폭리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소작농민을 화자로 내세워 그 부당한 사정을 고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농민의 억울한 입장은 농업공황으로 인한 미곡가의 폭락과 함께 일제의 비호 아래 자행된 지주와 비료상업자들의 부당한 횡포와 폭리에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딱한 사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농업공황으로 인한 미가폭락의 현실은 일제하 농업제도의 근본적 모순 속에서 농민들에게만 엄청난 부담으로 전가되어, 극도의 궁핍에 허덕이게 하거나 농토를 떠나 화전민이나 유랑민으로 전락하게 했던 것이다. 농민의 궁핍상과 유랑민의 비극적 삶을 형상화한 시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다시 재음미될 수 있는 것이다.

(5) 민족적 농민시

농민사의 농민사에서 각별하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거나, 농민의 주체의식에 입각한 농민의 해방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는 작품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농민사의 전체적 입장이 농민계몽의 민족개량주의에 있었던 만큼, 계몽적 농민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데 비해 민족적 농민시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농민사의 농민시가 갖는 이러한 한계성 속에서도 드물게나마 현실의 적극적 대항의지를 나타낸 작품이 찾아지는 것은 의의있는 사실로 평가된다.

半萬年の 艱文化 우리의 歷史
 二千萬의 韓民族 우리의 同胞
 江山조차 조코살진 우리朝鮮은
 네로부터 내려오는 農業國이다.
 (후렴) 弱한자야 네일흠은 農民이로다
 그것치만 나아가면 強한자되네

農民들이 서로도아 나아가세
호미 낫 번뜩이는 우리힘으로
우리조선 새조선을 세워들보세

三千里의 무궁화 우리江山에
나날이 기우는 우리農民아
남의손에 뉘치말고 우리힘으로
캐여라 뒤여라 開拓해보세.

- 〈農民唱歌〉(鯨波) 중에서⁶⁶⁾

이 시는 초창기 농민사에서 농민창가를 현상모집한 중에 채택되어 발표된 작품이다. 농민사는 이 작품을 현상발표하면서 응모작품이 2천여 점에 달했는데, 그 중에 발표하기 불가능한 것도 많았고 창가답지 못한 작품도 많았다고 했다.⁶⁷⁾ “발표키 불가능한 것”의 구체적인 기준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작품의 내용상에서 그런 점이 있지 않았나 추단해 볼 수 있다. 위 작품도 따지고 보면 그런 요소를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다. 응모작품의 형식이 창가라고 했으니, 형식상에서 주목할 것은 없지만, 그 주제상에서 농본주의에 입각한 농민예찬과 계몽의 시각이 드러난 한편에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 민족의 주체 의식이 뚜렷하게 표명되어 있다. 특히 “나날이 기우는 우리농민아/남의손에 뉘치말고 우리힘으로”란 구절에서,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인해 농토를 빼앗기고 내몰리는 농민을 청자로 하여 주체적 단결의지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은 작품의 형식과 표현의 차원을 떠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민독자의 투고시로 보이는 다음의 〈農民歌〉도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知識업는우리들은 經濟上에慘敗맞나
하로잇홀주러가는 이내살림할수업시
잇던土地 팔게되고 업던負債 잇게되어
地主에 계辱보면서 小作權을 어더서는
괴로운것 무릅쓰고 一年間을 手苦하야
條件만흔 小作料에 一年秋收 다바치고
목숨살길바이업서 잠못자고 生覺한들
人情업는이世上에 同情할者누구리오

66) 朝鮮農民 제2권 제4호(1926. 4).

67) 같은 책, p.22.

거적자리움집속에 밥못먹고웃못입은
 늙은父母주린한숨 어린子息飢寒우름
 가삼속이터지는듯 눈물흘릴뿐이로다
 우리동무農民들아 奮發하고니러나서
 모든自然利用하야 保國安民되게하고
 우리들이피땀흘여 불상한者건제주세

— 〈農民歌〉(金河頌)에서

4·4조 가사체로 된 이 작품은 곡조상에서 〈禹德淳歌〉와 동일하다고 했다. 최원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덕순가〉(1909)는 개화기의 애국독립 가사의 하나인데, 단양 사람이었던 禹德淳이 일제의 통감정치에 분하게 여기고 해삼위로 가서 이름을 ‘連俊’으로 고친 후 연초판매업을 하고 있던 중, 동지 安重根이 이등방문을 저격할 것을 말하자 이에 동의하고 그 회포를 국문가사로 불렀다는 것이다.⁶⁸⁾ 이 가사를 쓴 김하송은 애국독립의 의지를 고취한 〈우덕순가〉를 의식하면서 농민의 현실에 비견되는 사실로 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제에서 이 가사를 보면, 일제하 농민의 경제적 수탈상과 궁핍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고발하면서 ‘보국안민’으로서의 농민의 분발과 집단적 유대 의식을 강경한 어조로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이 가사의 작자는 일제의 강제 침탈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는 농민의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농민의 주체적 각성과 민족적 단결의지를 호소했던 것이다.

사십총각 내팔자도 팔자려니와
 눈물한숨 삼천리는 무슨팔자며
 채밥히는 흰옷무린 무슨팔자
 긴긴세월 우는신세 웬팔자런가
 몇천해를 거둬트룩 바로못스고
 격구로만 백히세상 무슨팔자며
 대대손손 두고두고 벗고주리는
 짓밥히는 무리우린 웬팔자런가

— 〈머슴의 노래〉(林玄極)에서⁶⁹⁾

68) 崔元植, 앞의 글, pp. 57~58.

69) 農民 제1권 제6호(1930. 10).

임현극(임린)의 이 시는 머슴을 화자로 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머슴의 신세타령만 늘어놓은 것은 아니다. 머슴의 기구한 신세도 한스럽긴 하지만, “눈물한숨 삼천리는 무슨팔자며／채밟히는 흰옷무린 무슨팔잔가”에서 처럼 민족의 전체가 비극적 운명에 신음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 중에 특히 농민은 대대로 “짓밟히는 무리”로 헐벗고 굶주려 왔다고 통탄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이런 탄식 속에 일제하의 현실에 대한 극도의 부정의식이 개입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표현 그대로 “격구로만 백흰세상”이 시의 화자에게 각인되는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인식에도 불구하고 팔자타령만 한다면, 그것은 자학적 운명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이 시의 다른 구절에서 “눈물천지 웬일이나 주먹몽치네／먼산나무 갈때마다 땅을땅치네” 또는 “땅씨슬 비바람아 세상의봄아／어서오라 머슴나 참머슴되게”라고 하여, 비극적 삶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 대항의지와 미래의 참다운 세상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듯 이 시는 일제하의 비극적 현실에 개탄하면서, ‘세상의 봄’인 진정한 농민의 해방과 민족의 해방이 실현되는 그날을 머슴의 신세타령에 은폐시켜 노래한 민족적 농민시인 것이다. 임린의 다른 시 <일꾼의 노래>(농민, 1930. 2)도 위 시와 같은 맥락을 담고 있는 민족적 농민시이다. 그리고 허문일의 시 <이 땅에도 봄은 왔는가>(농민, 1933. 4)도 일제의 검열로 인하여 시의 상당 부분이 삭제되어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李相和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연상하게 하는 작품이면서 민족적 농민시의 계열에 드는 작품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 농민사 농민시의 문학사적 위상

지금까지 ‘조선농민사’에서 주재한 《조선농민》과 《농민》지에 발표된 시작품의 전체적 성격을 시의 현실표상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시작품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농민사의 농민운동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 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이와 연관하여 농민사의 농민시를 현실표상의 양상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조선농민사’의 농민문학은 1925년부터 1933년까지 약 9년의 기간 동안

전개되는 과정에서 농민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문단에 각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민문학운동의 실천적 노력을 중추적으로 이끄는 구실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사의 성격 자체가 문학 전문단체가 아니라 천도교 청년당에 소속된 기관으로 농민계몽운동에 주력한 농민운동 단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농민사의 농민운동의 방향은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취지와 내용을 약간씩 달리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농본주의에 입각한 중농주의에서 출발하여 농민교양사업과 경제협동사업을 주로 펼쳐 갔던 점진적 민족주의의 농민계몽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물론 농민사의 모든 활동을 이런 테두리에 한정하여 논단하기는 어렵다. 1928년 이후 몇 년의 기간 동안 소작문제 등 농민의 현실적 문제와 요구를 농민운동에 반영하고자 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민사 관련 의 여러 주장과 활동내용을 한층 치밀하게 밝히는 작업에서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농민문학의 여러 국면을 밝히는 데에서도 간접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농민사의 농민시는 우선 농민시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목가적 농민시, 풍속사적 농민시, 계몽적 농민시, 비판적 농민시, 민족적 농민시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목가적 농민시는 기본적으로 농민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면서 이상적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을 묘사한 시인데, 농민현실에 대한 비현실적, 추상적 인식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계몽적 농민시도 농민사의 농본주의 의식의 지나친 고양으로 농업과 농민의 일방적 예찬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농민의 도시지향적 방종과 허영의 경계, 시혜적 입장의 계몽의식 고취, 농민사의 농촌계몽운동과 경제협동운동의 취지 선전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몽적 농민시는 그만큼 목적의식이 강했던 까닭에 관념적 현실인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적 표현의 탄력도 충분치 못했지 못했다. 풍속사적 농민시는 농민의 전통적 풍속과 생활을 묘사한 시로 일부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었으나, 농민의 전통적 풍속과 의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계몽적 의도가 앞서 있었던 까닭에 시적 형상화에서 대체로 실패한 작품이었다.

농민사의 농민시에서 주목할 유형은 비판적 농민시와 민족적 농민시였다. 비판적 농민시는 일제하의 피폐화된 농민현실과 농민의 궁핍한 삶을 매우 사실적으로 들추면서, 이에 대한 일정한 비판의식을 보여주었다. 1920년대

후반기 이후 비판적 사실주의의 시적 모색을 이들 농민시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들 농민시는 문명화가 갖는 이면적 허구성을 간파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의 피폐화를 가중시키는 현실을 비판하거나, 노동의 보람을 찾을 수 없는 모순된 농민현실에 탄식하고 분노하기도 했으며, 유이민의 고달픈 삶의 역정과 그 비극상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제의 농업제도와 정책의 근본적 모순 속에서 농민의 궁핍화가 초래되는 현실을 비판적 어조로 묘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임린, 허문일, 허수만 등 농민사의 주요 시인으로 두드러진 시작활동을 한 시인의 시작품과 다수의 농민독자의 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만큼 비판적 농민시는 농민현실에 한층 밀착된 시의 활력과 다양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적 농민시는 농민사의 시에서 드물게 찾을 수 있지만, 농민의 주체적 각성에 입각한 농민의 해방의지와 민족의 단결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일제하의 문학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그것은 이들 시가 여러 제약이 가해지는 일제하의 문학적 상황에서 비판적 사실주의의 기초 위에서 적극적인 현실대항의 의지를 고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작품의 문학적 위상이 대부분 개화기의 창가나 가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이 아쉬운 한계로 지적된다.

농민사의 농민시는 이상에서 처럼 현실인식의 다양한 표상을 통해 일제하의 농민문학에서 중요하면서도 소중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비록 상당수의 작품이 문학적 형상화에서 미비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했지만, 농민현실에 밀착된 비판정신의 활력과 농민대중의 정서에 한층 접근하는 문학적 대중성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농민사의 주요 시인들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카프의 농민시나 기타 개별적으로 농민시를 창작한 여러 시인들의 시작품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된다면, 농민사 농민시의 문학사적 위상은 한층 분명히 밝혀지리라 본다.